

칠레, 육용우생산 개황

허 덕*

칠레는 쇠고기 수입국이었지만, 2002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개시하였다. 아직 쇠고기 수출은 양적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매년 배증의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식육 생산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자,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급원 개척,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정국으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이 시동되고, 2006년 2월부터는 수출전용 가축시설에 대해서는 공적관리하에 가축시설 등록이 의무화되어, 위생 현상의 향상·유지를 향한 대처도 강화되고 있다. 칠레의 육우 생산과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육우산업 개황

1.1. 사육 및 생산 동향

칠레에서는 센티에고 이남의 비교적 추운 지역이 주요 축산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식육은 전국의 50%, 유제품은 60% 정도를 생산한다. 주요한 육우 사육지역은 남부의 제8, 제9, 제10주로 이들 3주에서 전체 사육두수의 70%를 차지하며, 방목사육을 중심으로, 겨울은 건초, 사일리지 등을 보조 급여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261 huhduk@krei.re.kr

표 1 주별 사육 호수 및 두수

주	사육두수		사육호수		호당 사육두수
	두	%	호	%	두
제1주	4,618	0.1	542	0.3	8.5
제2주	524	0.0	111	0.1	4.7
제3주	6,606	0.2	345	0.2	19.1
제4주	38,782	0.9	3,146	2.0	12.3
제5주	131,671	3.2	5,932	3.7	22.2
수도권주	164,014	4.0	5,790	3.6	28.3
제6주	155,997	3.8	7,404	4.6	21.1
제7주	367,447	9.0	17,313	10.8	21.2
제8주	550,432	13.4	29,316	18.3	18.8
제9주	784,336	19.1	43,258	27.0	18.1
제10주	1,587,557	38.7	44,436	27.7	35.7
제11주	168,770	4.1	2,048	1.3	82.4
제12주	137,674	3.4	577	0.4	238.6
전국	4,098,438	100.0	160,218	100.0	25.6

자료: 국가통계원(INE) 센서스 1997년

표 2 주별 도축두수

주	1997년		2004년		증감율
	두	%	두	%	%
제1주	4,873	0.4	2,744	0.3	-43.7
제2주	8,210	0.7	8,020	1.0	-2.3
제3주	2,645	0.2	49	-	-98.1
제4주	20,979	1.9	16,123	2.0	-23.1
제5주	79,733	7.3	52,524	6.4	-34.1
수도권주	500,259	45.7	272,718	33.2	-45.5
제6주	38,522	3.3	29,674	3.6	-18.8
제7주	52,774	4.8	29,399	3.6	-44.3
제8주	98,154	9.0	102,622	12.5	4.6
제9주	108,919	9.9	104,166	12.7	-4.4
제10주	147,554	13.5	178,732	21.8	21.1
제11주	12,645	1.2	11,805	1.4	-6.6
제12주	21,417	2.0	12,653	1.5	-40.9
전국	1,094,684	100.0	821,229	100.0	-25.0

자료: 칠레농업부 농업정책국(ODEPA)

도축시설은 이전에는 수도권 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7년 수도권 주의 도축두수는 전체의 50% 이상이었다. 최근 지방에도 인프라가 정비되어 유통이 용이해지자, 2004년에는 수도권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3.2%로 저하되었고, 거꾸로 주요 사육지역인 제 8~10주의 도축이 47.0%로 증가하고 있다.

1.2. 수급 동향

1.2.1. 생산 동향

칠레의 쇠고기 생산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계속적으로 감소가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는 1997년 이후 계속된 감소 경향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이는 우유가격이 고가를 유지하여 낙농가가 착유 우 임신두수를 늘리고, 수출을 위한 전용 거세비육우의 거래가격이 미국·캐나다에서의 BSE 발생 등에 의해 상승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칠레에서는 1990년대에 쇠고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소비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 2003, 2004년은 5% 정도에 달하였다.

표 3 쇠고기 수급표

단위: 톤

연도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참고)소비량
2000	226,364	86,313	108	341,521
2001	217,644	84,953	68	331,188
2002	199,957	102,062	3,524	359,210
2003	191,784	122,617	6,443	369,963
2004	208,259	126,225	9,021	287,191
2005	215,584	141,554	18,749	-
비고	지육베이스	냉장 및 냉동, 제품중량 베이스	냉장냉동 및 가공육, 지육베이스	

표 4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쇠고기	342	258	226	218	200	192	208	216
(참고)								
돼지고기	123	172	281	303	351	365	373	411
닭고기	-	321	438	485	452	464	535	550

자료: ODEPA

표 5 종류별도축비율 추이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육성비육우	47.4	50.5	48.8	53.1	53.2	55.8	57.1
경산우	26.0	24.8	22.8	19.7	20.5	20.9	20.9
수소(거세포함)	7.3	6.5	4.6	4.7	4.7	4.6	4.4
미경산우	18.5	16.9	22.6	21.4	20.4	17.5	16.2
송아지	0.8	1.2	1.2	1.1	1.2	1.2	1.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DEPA

칠레 농업부 농업정책국(ODEPA)에 의하면, 2004년 도축두수 중 비육우가 전체의 57%, 경산우가 21%, 미경산우가 16% 정도이다. 두당 평균 지육 중량은 263.8kg(거세우, 2004년)으로 아르헨티나(276.7kg, 2004)에 비해 가볍다. 이는 광대한 팜파와는 달리 좁은 토지에서 사육하기에는 개체가 작은 편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대규모 생산국에 비하면 칠레의 연간 도축두수 80만두는 현재의 수급관계 상 적은 편이며, 이 때문에 5년간은 암소의 번식에 노력하는 한편 비육 육성우 출하를 늘리는 추세이다.

칠레에서는 곡물 비육장이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칠레 국내에서는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도 살코기를 좋아하는 경향이며, 고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옥수수나 기타 곡물을 비육용으로 급여하는 비율은 적다. 다만 수는 적지만 곡물 비육장은 수도권주, 제7, 제8주에 존재하고, 콘 사일리지, 목초, 알팔파 건초 등을 조합하여 비육되고 있다.

표 6 패커-도축능력 순위, 2001년

패커	소재지역	도축두수(두)	전도축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
Lo Valledor	수도권주	130,500	15.0
FRIGOSOR	제10주	73,400	8.4
Frigolifico DARC	수도권주	66,700	7.7
FRIOSA	수도권주	62,400	7.2
FRIVAL, Valdivia	제10주	54,600	6.3
Frigolifico Temuco	제9주	47,500	5.5
CAMER	수도권주	34,000	3.9
Cames Nuble	제8주	25,000	2.9
계		494,100	56.8

자료: INE

1.2.2. 소비 동향

2004년 1인당의 쇠고기 소비량은 23.7kg, 닭고기 28.8kg, 돼지고기 17.9kg 정도이다. 쇠고기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크게 늘어난 이후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2. 무역 관계

2.1. 수출입 동향

2.1.1. 수출

칠레가 본격적으로 쇠고기 수출을 개시한 것은 2002년 후반 이스라엘, 쿠바에 수출하면서부터이다. 이전에는 허, 내장, 피혁이 주였다. 2003년 7월부터는 EU 수출도 시작되었으며, 이후 매년 거의 배증의 페이스로 확대되고 있다. EU와는 2003년 2월에 발효한 FTA 협정에 따라 연간 1천 톤까지는 무관세인 관세 할당치로 수출되며, 무관세 관세 할당치는 매년 100톤씩 확대된다.

2005년 쇠고기(가공육 포함)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7.8% 증가한 18,749톤이며, 수출 금액으로는 동 137.1% 증가한 5억 4,403만 달러(약 6,470억원: 1달러=1,190원)에 이른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은 전년대비 323.5%, 금액 베이스로는 282.8%로 급증함과 동시에,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량 베이스로 17.0%, 금액 베이스로 22.8%로 늘어나, 일본은 멕시코에 이어, 제 2위의 수출지가 되고 있다. 제1위인 멕시코는 수출량으로 58.7%, 수출액으로 51.2%를 차지한다. 부산물 수출량은 전체의 90%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표 7 칠레의 육류 수출 추이

연도	수출량 (톤)	그 중 일본수출 (톤)	수출액 (천달러, FOB가격)	그중 일본 수출 (천달러, FOB가격)
2001	68	-	410	-
2002	3,524	10	6,660	15
2003	6,443	1	15,245	10
2004	9,021	753	22,949	3,242
2005(속보치)	18,749	3,190	54,403	12,410

자료: ODEPA

주: 냉장, 냉동 및 가공육, 지육환산 베이스

수출량 증가 요인으로는 높은 위생 수준에 의해,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이 크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정국으로, EU, 멕시코, 일본 등 위생 조건이 까다로운 나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칠레 식육처리가공시설협회(FAENACAR)에 의하면, 업계 전체에서 현재의 연간 수출량 약 2만 톤을 2010년에는 15만 톤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동 협회는 농업부, SAG 등 정부기관과 기업의 중개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패커에 대해서는 인프라 정비나 제품의 품질 향상, 검사 공정 개선, 시장 개척 등을, 생산자에 대해서는 마켓에 따른 품종별·연령별 특화, 급여사료나 가축개량 등을 어드바이스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3년 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목표치 2만 톤에서

15만 톤으로 증가가 비교적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생산량의 30~40%를 수출로 돌릴 수 있게 되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국별 쇠고기 수출량 비율,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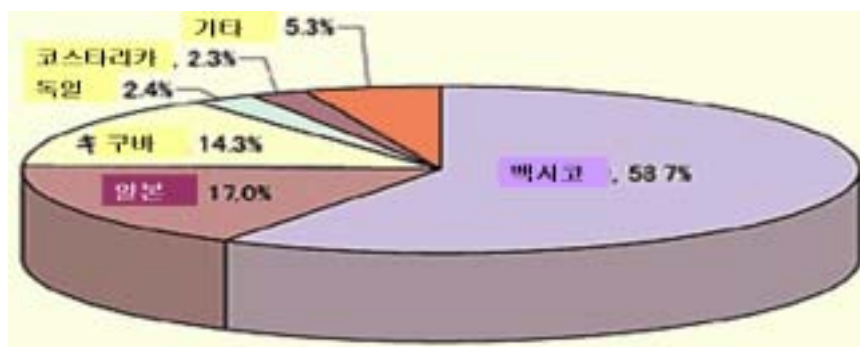


표 8 15년 후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관세 삭감율(%)

연도	96→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삭감율	0	17	33	50	67	83	100
관세율	6.0	4.98	4.02	3	1.98	1.02	0

2.1.2.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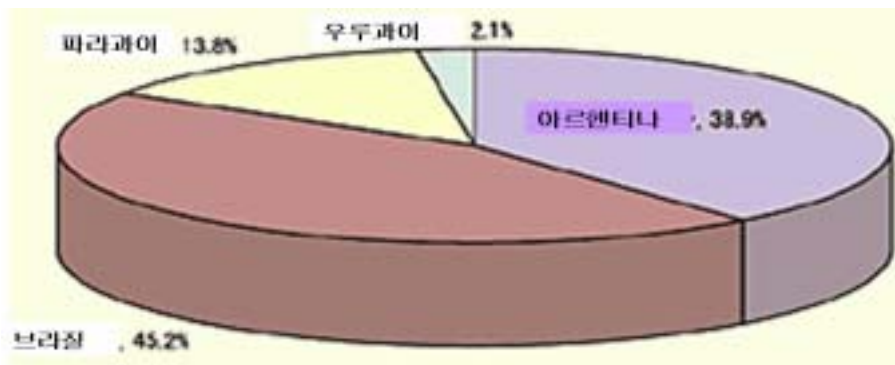
거의 전량을 중남미연합(Mercosur)에서 수입하며, 그 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2개국이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에서 2005년 10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브라질 전 국토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여, 향후 반년~1년은 해금되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2005년 10월 이후는 지금까지 전수입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아르헨티나산이 70%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브라질 수출 정비 분을 거의 커버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는 Mercosur 4개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6%에서 4.98%로 인하된다. 이는 1996년에 칠레가 Mercosur에 준가맹국으로 입

회하였을 당시 협정에 근거한 조치이다. 쇠고기는 아래 표와 같이 민감품목으로 취급되어 10년간은 관세율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고, 11년째인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2011년에 무관세가 된다. 아울러 칠레는 이전에 Mercosur 각국에 관세 할당량을 주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6년까지, 우루과이는 2007년까지, 파라과이는 2009년까지 조치되도록 되어 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을 하지 않은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살리는 한편 관세인하를 활용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염가의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위생 조건의 엄한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에 자국산 쇠고기를 고가로 수출하는 방향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국별 쇠고기 수입량비율, 2005년



2.2. FTA

칠레에서는 FTA의 적극적인 추진(멕시코, 캐나다, EU, 미국, 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맹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국 등)하여 확실한 수출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확대에 중점을 둔 다각적인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FAENACAR에 의하면, 축산물 수출은 84개국이 넘으며, FTA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어도 각각의 시장의 요구에 맞춘 대응을 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한다.

향후 칠레의 수출확대에 빼 놓을 수 없는 시장으로써 아래 국가와의 쇠고기 관련 비준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미국

칠레와 미국은 2003년 6월에 FTA에 조인하고, 2004년 1월부터 발효했다. 칠레가 수출할 경우, 쇠고기에는 관세할당(2004년 1,000톤, 2005년 1,100톤, 2006년 1,210톤, 2007년 이후 관세 철폐)을 채용하고, 돼지고기는 무관세였지만 위생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FTA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5년 11월에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FSIS)으로부터 칠레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수입 허가가 통보되어, 칠레측은 미국시장의 요구에 맞춘 도축시설의 인정 수속을 개시, 12월 23일에 Frigosor를 포함한 세계의 시설이 인정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쇠고기 생산국이며,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USDA의 전망에 의하면 2006년의 수입량이 168만 7천톤(지육 베이스) 정도 이다.

2.2.2. 한국

한국과의 FTA는 2003년 2월에 조인, 2004년 4월부터 발효했다. 관세 할당을 적용하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연 400톤(냉동 200톤, 냉장 200톤) 정도, 일정 수량을 넘는 관세의 취급은 도하개발계획(DDA) 종료 후에 재협약하기로 하였다.

2.2.3. 중국

2005년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석상에서, FTA가 조인되고, 중국으로서는 중남미 제국 중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것이다. 향후 의회의 승인수속 등을 거쳐 발효하게 되지만, 칠레 수출품의 92%, 중국 수출품의 50%가 협정발효 즉시 무관세가 되며, 기타 품목으로는 10년 이내에 무관세가 된다. 예외품목으로는 칠레 1%, 중국 3%의 품목 정도이다. 쇠고기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3.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

3.1.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3.1.1. 제도의 도입

2001년에는 불과 30만 달러(약 3억 5,700만원)이었던 쇠고기 수출액은, 2003년 1억 5,000만 달러(약 178억 5,000만원), 2004년 2,300만 달러(약 273억 7,000만원), 2005년 5,400만 달러(약 624억 6,000만원, 속보값)에 이르며, 중기적으로는 연간 1억 달러(약 1,190억원) 수출이 전망되며, EU, 중동, 아시아시장 등이 새롭게 획득 가능한 개척지이다.

그러나, 이들 수입국이 원산국, 가축위생, 안전성 등의 각 증명을 수입조건으로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어, 2004년 11월 1일부터, 소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이 시동되었다. 이는 ‘소의 위생 트레이스어빌리티 공식 프로그램의 책정’에 관련되는 SAG 결의 제 3321호(2004년 9월 13일자)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선, 제 11주의 소 관련 축산시설부터 등록이 개시되었고, 기타 주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시스템은 이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① 소 관련 축산 시설의 등록
- ② 개체 식별 공식 장치(DIIO)의 등록
- ③ 가축의 이동 등록
- ④ 가축 수송 수단의 리스트
- ⑤ 축산정보 공식시스템(SIPEC)

3.1.2. 소 관련 축산시설의 등록

대상 시설의 구분은 이하와 같다. 이러한 시설은 SAG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SAG는 등록시설에 대해 모든 수속에 필요한 축산시설 등록부(RUP)에

개재된 시설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9자리수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아울러, ①~⑦ 이외의 시설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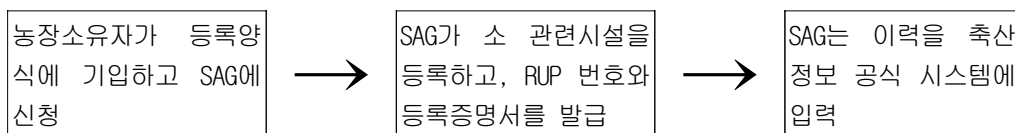
각 시설의 소유자는 매년 7월에 6월 30일 현재의 사육두수를 신고한다.

- ① 공적 관리 하 가축시설(PABCO) 메뉴얼 규정에 맞는 PABCO의 A, B, C 각 시설(수출 발송국의 요건 중 하나를 선택)
- ② 산악방목을 하는 소 사육 시설
- ③ 국경 지역에 위치한 사육 시설
- ④ 송아지를 수입하는 사육 시설
- ⑤ 질병관리박멸 프로그램 참가시설 중 본 등록제도로 지정하는 사육 시설
- ⑥ 전시회장
- ⑦ 자가소비용 도축 또는 가축 처리시설

표 9 시설별 적용 범위

	시설등록 (RUP)	사양시설 신고	가축이동 위생서의 사용	DIIO의 장착의무
PABCO A	○	○	○	○
PABCO B	○	○	○	×
PABCO C	○	○	○	×
송아지를 수입하는 시설	○	○	○	○
질병관리 프로그램 참여시설	○	○	○	○
산악방목 실시 시설	○	○	○	○
국경지역 위치 시설	○	○	○	○
전시회장, 자가소비용 도축 또는 가축처리시설	○	×	○	×

그림 3 등록의 흐름



3.1.3. 개체 식별 공식 장치(DIIO)의 등록

축산시설 등록부(RUP)에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되는 소가 귀표장착의 대상이 된다.

DIIO는 SAG에 인가된 제조업자가 SAG에서 준 개체식별용 9자리수 번호 등을 표시하여 제조한다. 황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정해져 있으며, 왼쪽 귀에 귀표 타입을, 오른쪽 귀에 단추타입을 장착한다(오른쪽 귀에는 미소한 무선 IC장치도 이용 가능, 체내에 묻는 방식은 불가). 재사용은 할 수 없다.

그림 4 DIIO 의 이미지



DIIO는 생후 평일 20일 이내에 장착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조방적인 대규모 목장의 경우에는 출하 전까지 장착을 전제로 이유까지 또는 6개월령 이내에 장착하는 것도 인정된다. 수입소의 경우는 SAG에 개체 등록함과 동시에 검역기간 종료 후 즉시 DIIO를 장착하고, 이러한 수속이 종료되기 전에 농장 등에 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소를 수입한 시설은 RUP에 등록하고, 매년 사육두수의 신고와 3.1.4.의 가축이동위생서의 사용의무를 진다.

DIIO 1개당 가격은 2달러(2,380원) 전후로 구입비는 생산자 부담이다. DIIO 장착의무는 앞의 표와 같이 RUP에 등록한 모든 시설의 소가 아니다.

3.1.4. 가축의 이동 등록

소 관련 사육시설 간 가축을 이동할 때에는 가축이동위생서의 휴대가 필요하며, 위생서 없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생서는 복사식 3부이며, 그 중 사본 1부를 반출처 시설, 나머지 1부를 반입처 시설, 원본은 가축 반입처 시설로 이동 뒤, 평일 10일 이내에 반입처 소관의 SAG 사무소에 제출되어 보관된다. 반출처 및 반입처의 2부는 의무적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SAG 사무소에 원본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SIPEC에 그 정보가 입력된다.

3.1.5. 가축 수송수단 리스트

가축은 ‘가축 및 식육수송에 관련한 일반규정’(성령 240호/1993년)을 준수한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하며, 수송 시에는 SAG에 등록된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월초의 평일 10일 사이에 인정기관이 SAG에 지난 달의 동기간에 증명한 수송수단을 보고한다. 보고된 정보는 수송수단 소유자의 이름과 납세자 번호(RUT), 트럭의 등록번호, 증명서번호, 인정기관의 SAG 등록지명과 번호, 증명자 이름, 발행 연월일이다. 해당 증명서는 검사관이 요구하면 이에 응해 제시할 수 있도록 가축 이동 중 차량 내에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3.1.6. 축산정보 공식시스템(SIPEC)

SIPEC는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의 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대비하는 것으로,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의 정보수집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1) 문서에 의한 것. SAG는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SIPEC에 해당 정보(소관련시설 등록서, 가축 재고신고서, 소 개체식별서, 가축이동위생서, DIIO의 배포·관리서 및 가축이송수단 리스트)를 입력한다.

- (2) 전자 서식에 의한 것. 홈 페이지상에서 입력한다.
- (3) 데이터베이스로 교신. SIPEC를 위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력한다.

2005년 7월 첫 번째 사육두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6월 30일 현재로 11,735시설이 등록, 12만 0,082두에 DIIO가 장착되어, 137만 9,585두의 사육이 신고되었다.

표 10 각 레벨의 준수 내용

항목	A수준	B수준	C수준
축산시설등록부(RUP)의 기재	○	○	○
가축사육두수 신고	○	○	○
인정 수의사의 이용	○	○	-
SAG에 의한 관리·지도	○	○	○
동화작용물질 사용 않는다는 취지의 공증인 작성 서약서	○	-	-
등록시장에서 개체의 거래	○	○	○
든든한 목책, 둘레 및 경계선 설치	○	○	-
가축의 등록, 치료, 약제용 냉장시설 각 부분 설치	○	○	-
수출전 최저 3개월간 PABCO 시설에서 관리	-	○	○
출생부터 수출되기까지 동안 PABCO A시설에서 관리	○	-	-
DIIO 장착	○	-	-
동화작용물질 사용금지	○	-	-
가축배설물의 사료 사용 금지	○	-	-
가축이동력의 가축이동위생서의 휴대	○	○	○
약리학적 치료의 기록 보지	○	○	-
수의사 처방에 따른 약리학적 치료	○	-	-

3.2. 공적 관리 하 가축시설(PABCO) 프로그램

SAG의 수출 증명 시스템은 농장 및 농축산물의 인증으로 구성된다. 농장인증의 경우 한 가지 수단이 PABCO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은 수출 발송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가축위생조건과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축 시설을 보증하는 것이다.

표 11 각국의 요구수준

국명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	일본	멕시코	파나마	페루	에쿠아도르	홍콩	코스타리카	쿠바	볼리비아	이스라엘
	A	A	A	A	B	B	B	B	B	B	B	C	C	C	C

농장은 가축 또는 그 가공품 및 부산물의 수출 발송국 요건에 따라, PABCO의 A, B, C 수준의 어느 것 중 한 가지를 채용할 수 있다. PABCO의 모든 수준은 SAG의 현행규정 이행을 보증하는 공적 관리 하에 있으며, SAG는 수출 발송지에서 규정된 요건에 따라 국가 리스트 및 농장이 속하여야만 하는 해당 PABCO 수준을 마련한다.

준수 내용은 농장의 시설설비, 가축의 취급, 기록의 보관유지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임의였던 PABCO에 등록은 2006년 2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

4. 맺음말

칠레는 2006년 1월 OIE로부터 BSE 청정국으로서 잠정 승인과정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이 승인에 의해 칠레는 EU가 작년 8월에 실시한 리스크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잠정 청정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4 개국뿐이므로, 이번 OIE에 의한 평가가 정식으로 승인되면, 칠레의 위생조건이 세계적으로 보증되고 쇠고기 수출에 순풍이 될 것이다.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위생상황의 강화를 배경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전개한 실적도 강점이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을 하지 않은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지위와 FTA를 배경으로 향후 수출확대는 확실시된다.

최대 수입처인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의 인플레이 대책의 하나로 쇠고기 국내가격을 억제하고 있으며, 국내수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수출을 억제하는 조치 등도 채택되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의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조치, 추가로 2월의 아르헨티나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의한 남위 42도 이북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금지도 추가되었다.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려 자국산 쇠고기를 수출로 돌리려는 칠레의 예측대로 나아갈 것 인지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자료 : <http://alic.lin.go.jp>